

보도설명자료 (18.2.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해외 전시주최자 배만 채워주는 정부” (18.2.2, 한국경제)

1. 기사내용

□ 산업부에서 국내 전시주최자의 해외특별전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

* 해외특별전: 킨텍스 'K뷰티엑스포', 벡스코 '베트남 하노이 환경 에너지산업전', 한국 섬유산업연합회 '프리뷰 인 뉴욕행사' 등

○ 해외특별전은 만족도 등의 성과가 높으므로 단체 참가 지원사업과 다른 잣대로 평가가 요구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해외특별전은 성과 제고를 위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1년간의 제도 유예기간을 거쳐, 금년도부터 해외전시회 단체참가지원 제도로 편입하여 운영하고 있음

□ 금년도 지원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개최(2018.1.31.)하여 국내전시주최자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,

○ 2월 중 국내전시주최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추가 의견수렴, 평가기준 마련, 지원방안 검토를 진행할 예정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박덕열 과 장 (044-203-4030)
홍성진 주무관 (044-203-4036)